

2018, 시리아에 희망을

2018년 현재,
총 1,310만 명의 시리아인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리아 안팎에서 총 580만 명의 어린이가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310만 명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립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10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집을 잃고 국내에서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298만 명의 난민이

포위되어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합니다

바르셀로나 시민 전체가 포위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580만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싱가폴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63-099071-02-101 김성태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Open Doors(등록번호 성북 라 00066) 부록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33)

아시아(Asia)

1일(토) 북한(North Korea)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폭력적 구조를 걷어내고 정의가 살아있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대립 종식과 함께, 북한 내 억압적 체제 철폐와 인권 탄압 중단을 통해 북한의 억압적 구조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와 한반도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2일(일) 북한(North Korea)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대외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북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여전히 주민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숨기고 생활하는 북녘의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한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일(월) 브루나이(Brunei)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브루나이는 45만 명의 인구 중 약67%가 무슬림으로, 이슬람 왕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약 4만 명의 크리스천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약 13%에 달하는 불교 신자 다음으로 많습니다. 16년 이후 정부는 교회 건립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도자는 벌금형이나 5년 실형을 받게 됩니다.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브루나이에 확산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4일(화) 부탄(Bhutan)

1990년 이후 부탄 내 기독교에 대한 규제는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부탄 내 2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은 불교도들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과 아름다움의 웃을 입은 이 땅은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어두운 곳입니다. 더욱이 부탄의 기독교인들을 양육할 사역자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부탄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8월호 동일)

5일(수) 중국(China)

중국 당 중앙위가 국가주석 2연임 임기조향을 삭제함으로, 시진핑 집권이 15년이상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가정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 당국의 묵인 아래 2, 3 선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크게 성장했지만,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강한 통제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장기화가 예상되는 기독교 탄압에 교회 지도자들이 순결과 지혜로 잘 리더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8월호 동일)

6일(목) 중국(China)

중국의 지방 정부 당국은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여름 캠프를 개최한 지하교회 리더 2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로써 캠프 준비위원장 왕이친과 리쌍둥은 성직자 자격이 박탈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10-14세 학생 80여 명의 학생들이 헨진에서 일주일간 청소년 캠프를 하고 있을 때, 현지 경찰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기독교의 성장이 중국의 국가 안보와 문화를 해칠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7일(금)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 치안병력 100여 명이 동부 주요 도시 가즈니에서 반군인 탈레반과 전투를 치르다가 사망했습니다. 아프간의 국방장관은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즈니에서 나흘째 계속된 전투로 군인과 경찰 100여 명을 비롯해 20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측에서는 12명의 지휘관을 포함해 194명이 사망했습니다. *죽음과 전쟁, 공포 가운데 있는 이 땅 백성들이 공활함을 입고, 생명 되신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8일(토) 라오스(Laos)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종족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몽족, 브루족 기독교인들이 공권력과 지역주민들에 의해 구타당하거나 가재도구 파손, 가축을 약탈당하고 심지어 방화로 집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오스 소수민족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로 생존자체가 어려워 기도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 소수종족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9일(일) 방글라데시(Bangladesh)

군부와 이슬람주의자 세력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도덕한 나라로 평가됩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구의 절반 가량이 하루에 1달러가 안 되는 생활비로 살아갑니다. 이슬람 극우파에 의한 기독교인과 기독교관련 건물에 대한 테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힌두교 배경의 그리스도인은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가난과 숨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8월호 동일)

10일(월) 인도(India)

인도에서 일어나는 박해는 극도로 폭력적이며, 보고된 사건 사고 건수는 매우 높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대중매체에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아(Goa) 지역에서는 기독교인 무덤 100곳 이상이 훼손되었으며 6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인도 교회가 핍박이 거세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동(Middle East)

11일(화) 시리아(Syria)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250,0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3의 아이들만이 학교를 다니며, 먹을 것은 부족합니다. 50% 이상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낫을 잃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절반은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살수 없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UN과 세계열강들이 함께 시리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2일(수) 레바논(Lebanon)

레바논 역사는 지난 70년간 내전, 외국(시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간섭, 인질 납치 등 비극적인 사건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주 근로자에 대한 학대와 구타 임금 미지급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안정되어야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감소하고 국내 기독교 지도자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많은 교회가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안정화와 소수 그룹으로 폭력에 취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8월호 동일)

13일(목)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의 발상지이자 본거지입니다. 메카는 수십억 명의 무슬림과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영적 영향력의 중심지를 뒤흔들어 사람들이 그분의 주 되심을 알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영적 돌파구가 이곳에 마련된다면, 이슬람교와 무슬림이 변화할 것입니다. *세계에 이슬람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

는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결이 불도록 기도해 주세요.

14일(금) 예멘(Yemen)

예멘의 기독교인은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에티오피아 난민이 대부분이며, 그 중에는 몇몇 성공적인 복음주의 교회도 존재합니다. 그 밖에 일반 직업에 종사하는 서구인과 동남아시아인, 다른 아랍인도 있습니다. 북부는 아직 교회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존재하는 끊임없는 위협과 낙담, 아픔, 고립 속에서 외국인 신자들이 영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5일(토) 이란(Iran)

이란 정부는 이슬람 정부이고 국가는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에 반하는 모든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기운 데다 일터에서도 차별당하기 때문에 가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이 적절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주는 압박 받는 기독교인에게 하나의 해결 방법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란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결정적인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러한 경제적 압박을 헤치고 나아가도록, 그리고 떠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6일(일) 이라크(Iraq)

이라크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시아파 무슬림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라크에서 그리스도인의 수는 계속 줄어들어 현재 소수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역자들이 이라크의 시아파 무슬림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그리고 이라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이라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7일(월) 카타르(Qatar)

카타르는 인구 190만 명 중 국적자 2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외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카팔라’라고 불리는 외국인 근로자 후견인 제도로 인해 카타르는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노동자의 신분을 노예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17년 공식적으로 ‘카팔라’ 제도가 없어졌지만, 가사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형성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8일(화) 이스라엘(Israel)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에는 메시아닉 유대인, 외국인 신자, 아랍계 이스라엘 기독교인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법은 국가 정체성과 유대인의 종교적 정체성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유대인은 시민이 될 수 있으나, 기독교인인 유대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인들이 국가와 사회, 가족의 압박에도 법적으로 온전히 이민과 사회적 시설에 대한 권리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19일(수) 팔레스타인(Palestine)

팔레스타인 기독교인은 스스로 양쪽 모두에게 공격 받거나 버림 받았다고 여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팔레스타인 아랍으로 여기고, 극단주의 무슬림은 서구의 협력자로 여깁니다.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다른 쪽에서는 무슬림이 가하는 압박이 증가하면서, 더 좋은 삶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이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위에 굳게 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앙아시아(Central Asia)

20일(목) 타지키스탄(Tajikistan)

국민 대부분이(98% 무슬림) 가난에 허덕이고 마약거래상은 번영을 누립니다. 해외 원조에 의존도가 높고 실업률이 높아 850만명의 인구 중 100만명 이상의 남성이 해외(대부분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인구 감소와 교회 지도자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찬송가를 부른 한 목회자는 종교혐오유발 죄목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이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1일(금)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동방정교회를 제외한 기독교 교단의 활동, 심지어 기독교 존재 자체에 대한 적대감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증가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외국 기독교인은 추방당했고, 몇몇 토착민 목회자는 망명해야 했고 매맞는 수모를 겪었으며 심한 벌금을 물거나 투옥되었습니다. 교회는 위협당하고 모임은 금지되었으며, 교회는 등록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용기 있게 굳건히 서며, 이 나라에 있지 않은 기독교인이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리카(Africa)

22일(토) 에리트레아(Eritrea)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것이 흔합니다. 교회 금지법에 따라 복음주의 핵심 지도자들은 수감되었고, 뒤이어 목회자, 사회 곳곳에 있는 유명한 복음주의자, 최근에는 평신도까지 체포하고 있습니다. 구타와 끔찍한 고문으로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절름발이가 되거나 심지어 죽이까지 합니다. 현재 기독교인만 3,000명 넘게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이 강건하게 은혜 안에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8월호 통일)

23일(일) 나이지리아(Nigeria)

나이지리아의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순전한 대학살’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이후 약 6,000명 이상의 여성과 아이들이 풀라니 무슬림들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무감각한 피흘림을 즉각적으로 멈출 수 있는 지원을 정부와 유엔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주의 자녀들을 선하신 주의 손으로 안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길 기도해 주세요. .

24일(월) 말리(Mali)

말리 박해의 주요인인 이슬람 탄압으로 인해 50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억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과 기독교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내주는 엄청난 지원 덕분에 무슬림 인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마코에 만 쿠란 학교가 3,000개가 넘으며, 개인 이슬람 교사가 어린이의 40%에게 쿠란을 가르칩니다. *말리 무슬림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읽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25일(화) 소말리아(Somalia)

수년간의 전쟁과 무관심으로 이 나라의 경제적 · 사회적 · 신체적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75만명이 넘는 사람이 국내에서 추방되고, 전쟁으로 50만명이 죽었습니다. 전쟁과 쿠데타, 특히 엄격한 형태의 이슬람 때문에 해외에서 원조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밀수업자, 노상강도, 해적, 테러범에게 은신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취약 층으로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6일(수) 콩고민주공화국(Republic Of The Congo)

콩고에서는 오랜 기간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집계 결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1천 300만여 명으로 작년의 배로 늘었고,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도 770만 명으로 30% 증가했습니다. 집을 잃은 난민도 450만여 명에 달해 20여 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97~2003년 내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내전의 종식과 숨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8월호와 동일)

27일(목) 지부티(Djibouti)

극소수의 소말리족과 아파르족 기독교인들은 가족에게 소외 당하고 친척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아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그들을 배척하고, 때리며 심지어 이슬람을 버렸다는 이유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자리가 없고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소외가 심합니다. *교육, 공중보건, 문서, 성경 번역, 문맹 퇴치 사역, 청년 사역을 통해 지부티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8일(금) 차드(Chard)

차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부족, 인종,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북부와 남부 지역의 대립으로 안정적인 국가 운영 또한 어렵습니다. 다르푸르에서 결성된 무장 세력과 반란 세력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 경제적 발전과 기독교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차드 정부의 무능과 부패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한 부족주의로 인한 기독교 박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9일(토) 에티오피아(Ethiopia)

수백만 명이 만성 영양 결핍에 시달리지만 외국의 식량 원조에 더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족별 · 지역별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후원하고, 구조물과 시설물을 확충하여 사회에 만연한 깊은 빈곤을 해결하는 사회경제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교회는 장기적 전략을 갖추지 못하고 박해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으며, 선교에 비전을 가진 교회는 3%뿐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 땅의 주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0일(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도우심 속에서 사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이사장 및 공동대표: 김성태 교수, 공동대표: 신현필 목사, 사무총장: 이중만 목사, 이사분들, 사역자들). *한국오픈도어가 전세계 핍박 받는 교회들을 위한 애타는 심정과 진심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후원자분들과 기도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